

‘대학 대신 출근’ 사회 첫발 내민 청년들

CULTURE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불안정한 미래와 일터에서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열아홉의 이야기. 직업계 고교 현장 실습생과 청년 노동자들을 조명하는 영화 ‘3학년 2학기’가 광주 관객들을 만난다.

(사) 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이상훈)는 오는 하반기 개봉하는 ‘3학년 2학기’(감독 이란희) 광주 거점 시사회를 오는 21일 오후 6시 30분 광주 독립영화관에서 진행한다.

이번 시사회는 광주실천교사, 광주시교육청 진로 진학과 직업교육팀, 광주교사영상모임 참네모,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교사노조,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영화영상인연대, 광주여성영화제 등 광주 지역 교육 및 청소년 관련 8개 단체가 함께 추진한다.

‘3학년 2학기’는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를 맞이해 포레보다 일찍 어른들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학생들을 중심으로 처음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사회 초년생들의 모습을 사려깊고 섬세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지난 몇 년간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과 청

‘3학년 2학기’ 광주 거점 시사회

21일 독립영화관·감독과 GV도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문제 다뤄

년 노동자들의 죽음이 뉴스를 통해 알려진 가운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삶과 청년 노동자들의 존재를 다뤄 주목받고 있다.

극은 실업계 고등학생 학생 창우와 친구 우재가 중소기업 공장 현장 실습을 나가면서 시작한다. 위험한 기계들이 널린 현장에서 서투게 일하는 인물이 천천히 성장해가는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냈다.

특히 영화는 대입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우리 주변에 존재함에도 가시화되지

않았던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문제를 영화화함으로써 무거운 사회 고발이 아닌, 사회초년기를 거치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방식으로 연출해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배우상, 한국영화감독조합 플러스엔상, KBS독립영화상, 송원 시민평론가상 등 4관왕을 차지했으며, ‘제50회 서울독립영화제’에서도 독립스타상, 열혈 스타프상, CGK촬영상 등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

정받았다.

이번 행사는 올해 9월 극장 개봉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진행 중인 ‘3학년 2학기’ 수하여행 시사회로, 인천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다.

상영 후에는 ‘3학년 2학기’를 연출한 이란희 감독, 신운섭 프로듀서와 함께 관객과의 대화(GV)가 마련된다. 진행은 정보형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 맡는다. 영화 제작 과정부터 직업계 고등학생들을 비롯한 교육 현장의 문제들이 공론화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이사장은 “이번 거점 시사회는 광주독립영화관이 영화상영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문제가 공론화되는 장이자 청소년들의 교육 공간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임을 알리는 사업”이라며 “교육계를 비롯한 일반 시민과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정보는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회 이후 공동체 상영을 원하는 단체는 배급사인 ㈜인디스토리(02-722-6051)로 문의하면 된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



영화 ‘3학년 2학기’

‘폭삭 속았수다’ 첫 장면…여수 청소년수련원 시청자 눈도장

넷플릭스 드라마 1회 촬영지는 ‘청심국제해양청소년수련원’

요양원 노인들 애심 그리는 장면 등장한 잔디밭…속박문의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16부작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1회 첫 장면의 촬영지가 여수시 화양면에 위치한 청심국제해양청소년수련원으로 확인돼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박보검, 아이유 주연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는 OTT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 순위에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베트남, 태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등 9개국에서는 1위에 오르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청소년수련원 측에 따르면 촬영은 지난해 봄에 이뤄졌으며 최근 1회 첫 장면으로 공개됐다.

요양원 노인들이 애심을 그리는 장면등 등장한 잔디밭이 수련원 잔디광장이다.

청심수련원은 전 객실에서 바다가 조망되는 여수 최고의 오션뷰를 자랑하는 곳으로, 수련원 내에는 콘도형 객실, 강당, 식당, 정동해수욕장, 해양레저체험시설, 암벽등반 시설, 국궁장, 편의점 등이 마련돼 있다.

여성가족부 인증을 받은 1박2일, 2박3일 일정의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이 없는 날에는 일반인의 예약도 가능하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촬영지인 여수시 화양면 청심국제해양청소년수련원 전경.

여수 청소년수련원 관계자는 “청소년 수련 뿐 아니라 대학교 MT, 단체행사, 기업연수, 개인 숙박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

히 드라마 방영 이후에는 촬영지를 찾거나 숙박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길 기자 swg3318@gwangnam.co.kr

건강한 동심의 회복 시편에 투영

우동식 동시집 ‘신난데이 우리 동네’

전남 여수를 연고로 활동 중인 우동식 시인이 첫 동시집 ‘신난데이 우리 동네’를 초록달팽이 동시집 17번째 권으로 최근 출간했다. 이번 동시집에는 소소한 일상에서 동심의 눈으로 발견한, 아름답고 따뜻한 유희와 희망을 주는 마음이 투영돼 있다. 수록 작품은 동시 57편.

시인은 세상 물성의 본질을 파악해 동심이 가득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일상에서 흔하게 대할 수 있는 등 사소한 것들까지 긍정의 시선과 밝음의 감각으로 생각의 웃음을 입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갈수록 학업 부담 등으로 동심보다는 각박해진 현실 속에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다운 감성이 무뎠을 수밖에 없다.

시인은 삭막한 감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린이들의 현실적 안타까움을 인식하면서 그들에게 천진난만한 동심을 안겨주는 한편, 어린이가 어린이답게 느끼고 그 느낌을 울곧게 자기만의 기억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동심을 한뼉 한뼉 시편에 스며들게 했다.

이정석 아동문학가는 표사를 통해 “우 시인은 무척 다재다능한 시인이다. 아름답고 맑은 동심과 차갑고 깊은 시심이 함께 분출하는 웅달샘 시인”라고 말했으며, 정병도 시인은 “우 시인의 동시는 밝고 건강하다. 넉넉한 품에 담겼다 나는 따뜻한 시인들이 독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동시를 읽다보면 빙그레 미소를 띠게 한다”고 평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남겨진 자들의 시간’

과거와 현재…상실과 회복 탐구

이철규 초대전…내달 20일까지 담양 대담미술관

전남 담양 소재 대담미술관은 이철규 작가의 기획초대전을 지난 12일 개막. 4월 20일까지 ‘기억은 추억이 되어, 고스란히’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다. 출품작은 에스키스 작품 8점을 포함해 ‘남겨진 자들의 시리즈’ 7점과 ‘소년에게 바침’ 2점, ‘트레블러’ 1점, 드로잉 2점 등 총 20점.

이번 전시는 작가가 시간과 감정의 흔적을 담아, 사람과 추억이 남긴 흔적을 되새기고 위로하는 과정이 담긴 작품들이 출품됐다.

작가는 ‘남겨진 자들의 시간’ 시리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의자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 상실과 회복을 탐구한다. 의자의 본질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의 희망과 좌절, 사랑과 상실이 쌓인 서사적 매개체이다. 빈 의자에서 느껴지는 부재의 감각은 작품을 통해 새, 꽃, 왕관, 우산 등 다양한 사물과 인간의 형상을 결합한 작품들은 삶 속의 관계성을 드러낸다. 관람객은 전시를 관람하며 자기 자신의 기억을 소환하고, 남겨

진 것들이 풀어내는 자신만의 추억과 함께 위로받을 수 있다.

또 작가는 개인적인 서사를 작품에 담아내는 동시에, 타인의 삶과 기억을 포착해 보편적인 경험으로 확장하는 데 집중한다. 이전 작업인 ‘소년에게 바침’에서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를 기리고, ‘트레블러’ 시리즈에서는 여행자와 이방인으로서의 존재를 탐구하며 감정의 깊이를 섬세하게 풀어낸다.

전시기획자인 최아영 부관장은 “작가의 작품은 우리가 지나는 시간과 남겨진 흔적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억이 단순한 과거가 아닌 현재를 지탱하는 요소로서 추억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진 것들이 풀어내는 자신만의 추억과 함께 위로받을 수 있다.

또 작가는 개인적인 서사를 작품에 담아내는 동시에, 타인의 삶과 기억을 포착해 보편적인 경험으로 확장하는 데 집중한다. 이전 작업인 ‘소년에게 바침’에서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를 기리고, ‘트레블러’ 시리즈에서는 여행자와 이방인으로서의 존재를 탐구하며 감정의 깊이를 섬세하게 풀어낸다.

전시기획자인 최아영 부관장은 “작가의 작품은 우리가 지나는 시간과 남겨진 흔적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억이 단순한 과거가 아닌 현재를 지탱하는 요소로서 추억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약국출시

한국인은 K-낙산균

세계에서 인정받는 K-낙산균
최초의 한국형 낙산균입니다.



문의전화 1588-8529